

秋夕 자비나눔, “소외이웃 마음 덥힌다”

강원·충청·전라도 사찰... 쌀, 생필품 등 전달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찰들의 따뜻한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속초 신홍사(주지 우송)는 9월 1일 신홍사복지재단과 함께 '자비나눔기' 행사를 개최했다.

'자비나눔기=행복더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홍사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410가구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비롯해 쌀과 과일 등 총 5000여 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신홍사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송년 대법회 등 명절과 봉축일에 지금까지 18회에 걸친 자비나눔기 행사를 펼쳐 총 9억 2700여 만원 상당의 성품을 불우이웃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달했다.

찾아 쌀 20kg와 수박을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종교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장민순 회덕동장은 “이번 사랑 나눔으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도 추석을 맞아 9월 4일 고창 여성회관에서 추석 음식을 직접 만들어 햅쌀과 함께 조순가정 등 200가구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종단 지도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열렸던 속초 신홍사 '자비나눔기=행복더하기' 행사 모습

저소득층·외국인근로자 위한

명절 나눔 릴레이도 이어져

자들은 고창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추석행사도 열렸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8월 31일 광주 하남공단 3번로 하남체육공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400여 명을 초청해 추석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5개국 10팀이 참여하는 배구대회를 시작으로 몽골,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각 나라별 음식축제가

열렸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경기에서는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협동제기차기, 고무신 훌리원 등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가 진행됐으며, 각 나라별 노래자랑도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네팔 근로자들 150여명이 참여한 맨스대회로 대미를 장식했다.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추석한마당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음식축제로 시작된 후 각 나라별 음식·문화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더해져 광주지역 대표적 외국인 문화행사로 발돋움했다.

추석맞이 한마당은 그동안 한국에서 제대로 쉴 기회가 없었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계 여유를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행사를 주최한 이주성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긴장감을 떨고 새로운 일에 대해 활력을 심어줬으면 한다”며 “한국 대표 명절인 한가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생활에서 소외받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각 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 소수민족이 가진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종립 정광중·고등학교, 청년회, 광주불교NGO연대 등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교육원, 마음 들여다 보기 강좌

마음의 불교로 일컬어지는 유식강좌가 개최됐다.

광주불교교육원은 지난 8월 19일, 26일 2일만에 걸쳐 유일상(순천 무탑명사학 교 대표),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사진)을 초청해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 주제는 '유식사상에서 바라본 행복론', '마음의 구조와 우리의 삶'이었다.

진우 스님은 8월 26일 법문을 통해 “유식학은 인간의 마음이 주체가 되어 삶의 현상을 만들어가는 대승불교사상으로 인간의 심성을 가장 세분화해 설명해 주는 학문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다 마음과 관련있지만, 마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작용과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유식불교”고 말했다.

한편 광주불교교육원 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은 9월 5일 개강 예정이다. 9월 21일(백제계 석탑 답사), 10월 19일(불보 사찰 답사), 11월 16일(화엄과 선종 사찰) '백제계 석탑을 찾아서' 주제로 불교문화 유적 답사도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선암·전북불교네트워크, 사찰기행 마련

자연을 잃어버린 도심 속에서 게임과 스마트폰에 파묻혀 생활하는 아동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문화여행을 떠났다.



완주 송광사에서 참가자들이 발우공양 하는 모습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과 전북불교네트워크(대표 오종근)는 8월 23일~24일 '전북의 맛과 멋을 찾아가는 여행'을 개최했다.

지역 초등학생들과 지도교사 40여명은 익산 왕궁면 왕궁리유적전시관과 금마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찾아 지역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완주 화암사(주지 방학)에서 국내 유일의 백제 하양식 목조건물인 극락전의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배웠다.

지역 초등학생들과 지도교사 40여명은 익산 왕궁면 왕궁리유적전시관과 금마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찾아 지역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완주 화암사(주지 방학)에서 국내 유일의 백제 하양식 목조건물인 극락전의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배웠다.

또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예불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발우공양을 하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실천서약에 동참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덕산 스님은 “도심 속 아이들이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여행을 준비했다”며 “사찰 음식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각교육은 물론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유선우(오송초 4)군은 “미륵사지에 와보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선생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바다로 띄운 음악편지... 실종자 10명 빨리 돌아오길 발원

풍경소리, 진도 팽목항서 음악회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위로의 하루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진도 팽목항에서 개최됐다.

광주지역 불교·천주교 등의 종교인 모임 무등산 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 중심사 주지)가 지난 8월 23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다림과 위로의 하루'라는 주제로 진도 팽목항에서 123번째 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함께 제작한 '기억하라 4.16' 솟대를 방파제 등대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한 행사는 '희생자를 위한 편지쓰기'와 전국 사진가들의 세월호 촛불사진전인 '기다림의 그림일기' 사진전도 개최됐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기도회'를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의 4대 종교의식에 맞춰 진행,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

도록 의혹 없는 원인 규명을 발원했다.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저녁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팽목항에서 진도VTS까지 침묵의 촛불행진을 벌였다.

음악회는 오후 9시 바다로 띄우는 음악편지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피아노 이상록, 클라리넷 구희균, 대금 신경환, 춤추는 평화 홍순관, 민중가수 류익남, 기타 박성연, 퍼커션 이승은, 한빛고등학교 합창 등이 이어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위안과 평안의 음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하늘로 울리는 바람'이란 주제로 빨리 돌아오라는 기원을 적은 416개의 풍등을 하늘로 날리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풍경소리 지기로 활동중인 최명진 목사



광주지역 종교인 모임 무등산 풍경소리가 8월 23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다림과 위로의 하루'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는 “진도 팽목항에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전국에서 기다림 버스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 작은 위로나마 남은 가족들이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세월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들이 빨리 마

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광주전남 종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돼 매월 무등산 중심사 문화광장에서 시민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즉문즉설' 월호 스님 초청

익산 정각사(주지 일남)가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33분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청해듣는 '33 선지식 초청법회'를 8월 25일 봉행했다. <오른쪽 사진>

지난 2월 처음 시작된 선지식 초청법회는 8월 법사로 행불선원 월호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각사 일행 스님은 “어렵게 선지식들을 모신 귀한 자리니 만큼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에게 당부했다.

불교 TV '즉문즉설'로 유명한 월호 스님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을 설하며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간단한 교리 문제를 내고 계승을 함께 낭송

하게 하는 등 흥미진진한 시간을 만들어 불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으며 부족한 사찰 재정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심이 약한 지역 불자들을 위해 매월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 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 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